

스페인어 등위접속 구문에서의 생략과 응집성 고찰*

양 승 관

단독 / 선문대학교

Yang, Seung-Kwan(2009), Estudio de la cohesión en las construcciones de vaciado en español.

Entre la oración antecedente y la de vaciado debe haber paralelismo sintáctico estricto; ambas deben contener los mismos constituyentes funcionales y los elementos fonéticamente realizados en la oración de vaciado deben contrastar con los que desempeñan la misma función en la oración antecedente. La cohesión está íntimamente relacionada con el paralelismo entre los constituyentes coordinados. El bajo grado de la cohesión de las oraciones coordinadas de vaciado se debe a la falta del paralelismo entre los constituyentes coordinados. Esta afirmación, sin embargo, plantea problemas al tratar la cohesión de las oraciones vaciadas. Aunque los constituyentes coordinados contienen estrictamente el paralelismo sintáctico, existen muchas oraciones vaciadas que no son aceptables. Así pues, propondremos que se necesita añadir otros recursos como los morfológicos y los semánticos para dar cuenta de la cohesión en las oraciones vaciadas. Desde el punto de vista morfológico, la existencia del acusativo preposicional 'a' en español ayuda a determinar más claramente el paralelismo de las funciones entre los constituyentes coordinados. Por otro lado, desde el punto de vista semántico, los constituyentes coordinados han de tener la misma función semántica y, a la vez, deben pertenecer a la misma unidad semántica. Si se satisfacen estos requisitos, los constituyentes coordinados están compatibles entre sí semánticamente y, por consiguiente, las oraciones vaciadas mantienen el alto grado de la cohesión.

[oraciones coordinadas de vaciado / cohesión / paralelismo;
등위생략 구문 / 응집성 / 평행성]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A00030).

I. 서 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의 사용은 대체로 다음의 두 원리를 따른다: 경제성 원리와 최적성 원리. 경제성 원리에 의거하여 언어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불필요한 잉여적인 요소를 갖지 않아야 하며, 최적성 원리에 따라 언어는 최상의 메시지 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언어 사용의 경제성과 최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언어학적 수단들 중 하나가 생략(elisión)이다. 생략은 문장이나 담화의 이해를 위해 잉여적인 구성소를 제거하여 외형적 언어 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발화간의 응집성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언어 사용의 기본 기능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화자는 청자에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에 나타나야 할 요소와 그렇지 못한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스페인어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살펴보고 응집성 효과를 고찰해 볼 것이다.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중요한 특징은 문장 구성소들 사이에 평행성 관계와 대조성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위 접속절의 각 구성소들 사이에 평행성과 대조성 관계가 문장의 응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본 요건임을 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다른 여러 언어학적 요인들이 또한 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등위 접속절의 상응하는 구성소들 사이의 형태·통사적 요인 및 의미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II.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유형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다음의 문장들에서 생략의 유형을 살펴보자. []는 생략된 요소를 반복 표기한 것이다.

(1) 공백화 구문(Vaciado)

- a. Roberto comió frijoles, y Manuel [comió] arroz.
- b. Roberto ate beans, and Manuel [ate] rice.

(2) 동사구 생략구문(Elisión del SV)

- a. *Roberto comió frijoles, y Manuel hizo también.
- cf. Roberto comió frijoles, y Manuel también.
- b. Roberto ate beans and Manuel did too.

(3) 유사공백화 구문(Pseudovaciado)

- a. *Roberto comió frijoles, y Manuel hizo arroz.
- b. Roberto ate beans and Manuel did rice.

(4) 등위문 축약구문(Redución coordinada)

- a. Roberto comió frijoles ayer, y [Roberto comió] arroz hoy.
- b. Roberto ate beans yesterday and [Roberto ate] rice today.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에서 생략의 유형을 스페인어와 영어 간에 비교해 보면, 공백화 구문과 등위문 축약구문은 두 언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사구 생략구문은 영어에는 나타나는 반면 스페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극성 어휘를 사용하여 유사한 형태의 동사구 생략구문이 가능할 뿐이다. 유사공백화 구문의 경우 영어에서는 나타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백화 구문과 등위문 축약구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두 구문은 다른 언어에서도 공통으로 많이 나타나며 따라서

1) 한국어 예문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i) 공백화 구문: 로베르토는 콩을, 마누엘은 쌀을 먹었다.
- (ii) 동사구 생략구문: ?로베르토는 콩을 먹었고 마누엘도 역시 그랬다.
- (iii) 유사공백화 구문: *로베르토는 콩을 먹었고 마누엘은 쌀을 그랬다.
- (iv) 등위문 축약구문: 로베르토는 콩을 어제, 쌀을 오늘 먹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그 언어들의 연구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

그 동안의 기존 연구동향을 보면, 등위구문이나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영어권에서 영어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등위구문이나 생략이라는 현상이 각 개별 언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들 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등위접속 구문에서의 생략과 그에 따른 응집성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스페인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등위접속 생략구문에 대한 연구는 통사 이론적 관점에서만 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등위접속 생략구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등위 접속절의 각 구성소들 사이에 형태·통사적 요인과 의미적 요인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I.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특징

3.1. 대조성 관계

다음의 기본적인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특징을 살펴보자.

- 2) 주어-동사-목적어 어순을 가지는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을 가지는 한국어와 일본어 두 유형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어순에 따른 생략의 위치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i) a. Yo comí pescado y Guillermo [comió] arroz.
 b. *Yo [comí] pescado y Guillermo comió arroz.
 c. I ate fish and Bill [ate] rice.
 d. *I [ate] fish and Bill ate rice.
 - (ii) a. Na-nun sengsun-ul [meokeota], kuliko Bil-un zal-ul meokeota.
 Yo-TOP pescado-ACC [comió] y Bill-TOP arroz-ACC comió.
 b. *Na-nun sengsun-ul meokeota, kuliko Bil-un zal-ul [meokeota].
 c. Watakusi-wa sakana-o [tabeta], sosite Biru-wa gohan-o tabeta.
 Yo-TOP pescado-ACC [comí] y Bill-TOP arroz-ACC comió.
 d. *Watakusi-wa sakana-o tabeta, sosite Biru-wa gohan-o [tabeta].

- (5) a. Mario visitó a Laura y Juan [visitó] a Paula.
 b. Antonio estudia física en Bilbao y Carmen [estudia física] en Sevilla.
 c. Ana leyó una revista en la sala y Sara [leyó] un diario [en la sala].
- (6) a. Luis envió una carta a Pedro y [Luis envió] una postal a José.
 b. Ana vio la película en el cine y [Ana vio] el vídeo en casa.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백화 구문의 기본적인 특징은 등위 구조의 두 번째 접속절에서 첫 접속절의 동일한 구성소들이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된 동사의 생략 그리고 동사와 더불어 보충어 또는 부가어가 생략되고 있다. (6)에서 볼 수 있는 등위문 축약구문의 특징은 두 번째 접속절에 반복 사용된 주어와 동사의 생략이다.

그런데 위의 구문에서 동일한 구성소들에 생략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생략이 적용되지 않은 구문과 생략이 적용된 구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예로, (5a)의 생략이 적용된 등위문과 그렇지 않은 다음의 등위문을 비교해 보자.

- (7) ??Mario visitó a Laura y Juan visitó a Paula.

(5a)의 생략은 평행한 구성소들간의 대조성을 두드러지게 할 정보 구조적 의도를 지닌다. 이러한 구체적인 메시지의 전달 목적, 즉 대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7)에서와 같이 생략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구성소들이 반복되어 사용될 것이다. 이 경우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잉여적인 요소를 반복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장의 응집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a)에서와 같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요소를 생략시킴으로써 문장의 잉여성을 낮추고 응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³⁾ 등위문 축약구문 (6)에서도 동일 구성소가 생략되지 않고 반복 사용되면 문장이 잉여

적이게 되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응집성이 매우 낮은 문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에는 문장의 의미 내용(진리 조건적 의미)이 바뀌지 않으면서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학적 수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수단들 중 하나가 바로 생략이다. 등위 구문에서는 대조성이라는 정보 구조적 목적을 위하여 동일 구성소의 생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⁴⁾.

다음의 예문 (8a, b)에서도 (8c)와는 달리 선행절에 나타난 동일한 어휘 요소들이 두 번째 접속절에 반복 사용됨으로 인해 구성소간의 대조성이 결여되고 응집성도 매우 약화됨을 볼 수 있다.

- (8) a. ??José compró un reloj para Ana y Mario [compró] un reloj para Ana.
 b. ??José compró un reloj para Ana y Mario [compró un reloj] para Ana.
 c. José compró un reloj para Ana y Mario [compró] una pulsera para María.

다음의 예문은 잔여요소들이 지시적으로도 동일해서는 안됨을 보여주고 있다.⁵⁾

(9) a. *Juani comió pescado y éli [comió] arroz.

- 3) 동사구 생략구문에서도 대조성의 결여는 문장의 응집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i) a. ??A Antonio le interesa la literatura y a Pablo no le interesa (la literatura).
 b. A Antonio le interesa la literatura y a Pablo no [le interesa (la literatura)].
 (Jiménez Juliá, 2005: 47-48)
- 4) 즉, 화자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청자가 알고 있는 정도와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가진 문장을 재구조화하게 된다. cf. Vallduví(1990), Vallduví & Engdahl(1996).
- 5) Kuno(1975)는 생략이 적용되고 남은 두 성분이 반드시 신정보를 전달하는 요소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9)와 같은 예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고 설명한다.

b. *Juani elogió a Antonio y el muy sensatoi [elogió] a José.

이러한 예문으로부터 대조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등위접속 구문에서 생략이 적용된 후 남게 되는 잔여요소(remnentes)들은 선행절의 해당 구성소들과 같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두 접속문의 평행한 요소들은 기능적으로 동일해야 하지만 음성학적으로나 지시적으로 동일해서는 안된다.⁶⁾

위에서 살펴본 등위 구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속되어 있는 문장의 구성소들과 대조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런 구문의 억양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대조성 관계에 있는 요소들은 강하게 발음된다.

- (10) a. JUAN compró EL LIBRO y MARÍA [compró] LA REVISTA.
 b. TRANSILVANIA eligió presidente a KOSTERLITZ, y ARGENTINA eligió presidente a PERÓN.
 c. TRANSILVANIA eligió presidente a KOSTERLITZ, y ARGENTINA [eligió presidente] a PERÓN.

6) 그런데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i) a. *María calificó el trabajo de José y Miguel [calificó el trabajo] de Manolo.

b. *Laura telefonó a Luisa y Antonio [telefonó a] Juan Carlos. (Brucart, 1987: 72)
 두 접속문의 평행한 요소들이 음성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대조성 관계에 있을 것 같은 데 비문이 되고 있다. 이는 잔여요소에 부과되는 통사적 제약을 위반하여 문장의 응집성이 떨어지고 결국 비문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등위문에 생략이 적용되고 남는 잔여요소들은 주구성소(constituyentes principales)여야 한다. Hankamer(1973: 18)에 따르면, “어떤 한 문장의 주구성소는 O(Oración)에 의해 직접 관할되는 요소 또는 O에 의해 직접 관할되고 있는 SV(Sintagma Verbal)에 의해 직접 관할되는 구성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ia)와 (ib)에서 잔여요소 ‘de Manolo’, ‘Juan Carlos’는 주구성소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비문이 되게 된다. 반면에 다음의 예문 (iia)와 (iib)에서는 잔여요소들이 각각 주구성소 ‘el trabajo de Manolo’, ‘a Juan Carlos’이므로 정문이 된다:

- (ii) a. María calificó el trabajo de José y Miguel [calificó] el trabajo de Manolo.

b. Laura telefonó a Luisa y Antonio [telefonó] a Juan Carlos.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성소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해 ‘주구성소’를 뜻한다.

반면에, 다음의 예문 (11a, b)는 접속된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대조적인 관계에 있지 못하고 강세화 되지 못하면 나쁜 문장이 된다.⁷⁾ 또한 예문 (11c, d)는 대조성 관계에 있지 않은 요소가 강세화 되어 비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1) a. *Juan compró EL LIBRO y Juan [compró] LA REVISTA.
- b. *JUAN compró el libro y MARÍA [compró] el libro.
- c. *TRANSILVANIA eligió presidente a KOSTERLITZ, y ARGENTINA SENADOR.
- d. *TRANSILVANIA eligió a Kosterlitz de PRESIDENTE, y ARGENTINA a PERÓN.

(Contreras, 1976: 333-334)

요약하면, 등위접속 구문에서 동일 구성소에 생략이 적용되어야 남은 구성소들 사이에 대조성이 강화된다. 반면에 생략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조성이 결여되고 응집성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문장이 된다.

3.2. 평행성 관계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접속절과 생략이 일어난 두 번째 접속절이 평행성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⁸⁾ 즉, 각 등위 접속절의 상응하는 구성소들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12) a. Antonio saludó a María y Manuel [saludó] a Carmen.
- b. *Antonio saludó a María y [Manuel saludó a Carmen].

7) 영어 예문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i) a. *John bought APPLES, and John BANANAS.
- b. *JOHN bought apples, and MARY apples.

8) 등위접속 구문이 아닌 경우에는 평행성 관계 하에 생략이 일어나지 않는다:

- (i) a. *Juan vio en un cine la obra que Luis [vio] en el teatro.
- b. *Juan dijo que Pedro [dijo] eso.
- c. *Juan estaba en el cine mientras Luis [estaba] en el teatro.
- d. *Juan trata a su gato con el cuidado con el que María [trata] al suyo.

c. *Antonio saludó a María y Manuel [saludó a Carmen].

d. *Antonio saludó a María y *pro* [saludó] a Carmen.

(12b)에서는 접속사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생략되어 있으며 (12c)에서는 동사와 함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선행절과의 그 어떤 평행성 관계가 설정되지 못해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12d)에서는 두 번째 접속절의 주어가 음성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공범주 *pro*로 나타나 있지만 역시 비문이 된다. (12a)에서와 같이 음성학적으로 명백하게 실현되어 있는 어휘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예문은 첫 번째 접속절에서도 주어가 음성학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으면 문장이 매우 어색해짐을 보여주고 있다(cf. Brucart, 1999: 2819).

(13) a. Yo tengo dos libros y Elena [tiene] tres cuadernos.

b. ??Tengo dos libros y Elena [tiene] tres cuadernos.

c. Yo soy estudiante y mi padre [es] mecánico.

d. ??Soy estudiante y mi padre [es] mecánico.

e. El herido dice que él vive en Badalona y su compañera [vive] en Mararó.

f. ??El herido dice que vive en Badalona y su compañera [vive] en Mararó.

(13b, d, f)에서 생략된 두 번째 접속절에 있는 구성소들이 선행절의 상응하는 구성소들과 평행성 관계에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세 문장의 선행절에 주어가 음성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또한 대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말할 수 있다.⁹⁾ 따라서 예문 (13b, d, f)는 문법성이 떨어지며 그 만큼 문장의 응집성도

9) 스페인어에서는 동사의 어미 변화형으로부터 인칭대명사 주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사이에 대조적이며 평행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음성학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약화되게 된다.¹⁰⁾

각 등위 접속절 구성소의 평행성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보자.

- (14) a. *Yo comí pescado y arroz Ø Guillermo.
 b. Yo comí pescado y Guillermo Ø arroz .
 c. *Esas chicas compraron un libro y un tebeo Ø esos chicos.
 d. Esas chicas compraron un libro y esos chicos Ø un tebeo.
 e. *?Juan dio flores a María y Pedro Ø a Ana bombones.
 f. Juan dio flores a María y Pedro Ø bombones a Ana.
- (15) a. Juan escribió la carta cuidadosamente y María Ø indiscretamente.
 b. *Juan escribió la carta cuidadosamente y indiscretamente Ø María.
 c. Beatriz vio a Ana ayer en el parque y José Ø Ø hoy en el museo.
 d. *Beatriz vio a Ana ayer en el parque y José Ø Ø en el museo hoy.

10) 등위문에서의 생략은 내포된 등위문내에서 동일한 요소가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지만(cf. (ia)), que절의 경계를 넘어서는 불가능하다.

(i) a. Dijo que Luis quiere ir al monte y María [quiere ir] a la playa.
 b. *Dijo que Luis quiere ir al monte, y que María [quiere ir] a la playa.
 c. *Juan prohíbe que Antonio vaya al teatro y Luis [prohíbe] que José [vaya] al cine.
 d. *María va al teatro y Juan me dice que Luisa [va] al cine. (Bosque, 1984: 193)

(id)는 평행성 조건을 위반하여 비문이 되고 있다. 그런데 (ib)와 (ic)는 평행성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일어나면 비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문으로부터 평행성 조건은 que절 경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언어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áez(communicación personal)에 따르면, (id)의 문장을 (ii)와 같이 재분석(reanálisis)하여 강세를 약화(deacentuación)시키면, 두 접속절간의 평행성 조건이 향상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즉 등위 구문의 응집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ii) María va al teatro y, Juan me dice, Luisa [va] al cine.

(14)에서는 상응하는 주어와 목적어의 문법 기능어의 순서가 다르고, (15)에서는 부가어의 순서가 다르다. 각 등위 접속절이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비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문으로부터 동일 성분이 생략된 구문에서는 문법 기능어의 어순이 등위 접속절 간에 평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등위문 축약구문에서도 문법 기능어의 순서가 바뀌면 비문이 되고 있다(cf. Brucart, 1999: 2820; Larson, 1990: 628-629).

- (16) a. María estudió ruso en Moscú y alemán en Berlín.
 b. *María estudió ruso en Moscú y en Berlín alemán.
 c. El decano convocó a las doce a los estudiantes y a la una a los profesores.
 d. *El decano convocó a las doce a los estudiantes y a los profesores a la una.
 e. Luis enviaba rosas a Elena y gardenias a Elisa.
 f. *Luis enviaba rosas a Elena y a Elisa gardenias.
- (17) a. John sent a letter to Mary and a book to Sue.
 b. *John sent a letter to Mary and to Sue a book.
 c. Max put the cat in the closet and the dog in the basement.
 d. *Max put the cat in the closet and in the basement the dog.

또한 담화 기능이 달라지면 평행성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화제-초점 구조에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등위문 축약구문을 살펴보자.

- (18) a. Pedro llegó ayer, y Juan llegó ayer.
 b. Pedro y Juan llegaron ayer.

(Contreras, 1976: 332)

정상적인 어조의 경우 ‘Pedro’와 ‘Juan’은 화제 요소이고, 동사구는 초점 요소로 해석된다. 만약, 생략 규칙이 문장의 화제-초점 구조를 무시한 채 적용되어 진다면, (19)와 같은 구조가 (18b)의 가능한 기저 구조가 될 것이다.

(19) Pedro llegó AYER, y ayer llegó JUAN.

그러나 (18b)는 (18a)와만 동등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19)와 동등하게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등위문 축약구문이 정상적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기저 구조가 되는 화제-초점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다음 한국어 예문에서도 스페인어와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20) a. ??미아가 사과를, (그리고) 배를 유나가 먹었어요.
 b. ??미아가 사과를 빨리, (그리고) 천천히 유나가 배를 먹었어요.
 c. ??미아는 사과를, (그리고) 유나가 배를 천천히 먹었어요.
 d. ??미아는 사과를 빨리, (그리고) 천천히 배를 유나가 먹었어요.
 (장석진, 1994: 264)

(20)에서도 동일 성분이 생략된 구문에서는 문법 기능과 담화 기능이 등위 접속절 간에 평행한 평행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 즉, 등위 접속절 구성성분 간의 어순이 바뀌거나 주제와 초점의 담화 기능이 달라지면 문장 전체의 응집성이 떨어지게 된다. (20a)에서는 주어-목적어의 문법 기능어의 순서, (20b)에서는 부가어의 순서, (20c)에서는 담화 기능의 차이, (20d)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관련된 어순과 담화 기능의 차이 때문에 응집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문들에 기초하여 평행성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각 등위 접속절은 동일한 평행한 구조를 취해야 하며, 상응하는 구성소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의 예문들도 평행성 제약을 위반하여 비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 (21) a. *María estudia inglés en Londres y Juan no [estudia inglés] en Dublín. (Sánchez López, 1999: 2625)
 b. *Antonio realizó su tarea y Pedro no [realizó] la suya. (Bosque, 1984: 178)
 c. *Luis no estaba haciendo crucigramas, y Pedro [estaba haciendo] jeroglíficos.
 d. *Marisa ama a Pedro, y Maribel no [ama] a Juan. (Brucart, 1987: 75)
 e. *Arturo no suele ir al cine, y Alfonso [suele ir] al teatro.
 f. *Jaime colecciona sellos, y Carlos no monedas. (Jiménez Juliá, 1995: 148)

선행절과 생략이 일어나는 절간에 극성(polaridad)이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긍정문과 부정문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 생략이 일어날 수 없다.

등위 접속된 구성소들 간에 평행성 관계는 감탄문과 의문문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2) a. ¡Qué bien baila el vals tu madre y qué mal Ø tu padre!
 b. ¿Quién imitó a María y quién Ø a Pedro?
 c. ¿A quién imitó María y a quién Ø Pedro?
 d. *¿Quién imitó a María y a quién Ø Pedro?

(Brucart, 1999: 2816)

(22a-c)에서 접속된 두 문장의 의문대명사 사이에 그리고 고유명사 María와 Pedro 사이에 통사적 기능이 동일함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각 구성소들이 평행성 관계에 있어 정문이 되고 있다. 반면에, (22d)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접속되어 있는 두 문장이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평행성 요건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3) a. *¿Quién vio a María y Julia [vio] a Antonio?
 b. *¿Dónde compró Juan dos libros y Luis [compró] dos discos
 en Madrid? (Sáez del Álamo, 1999: 1145)

첫 번째 접속절의 어떤 구만 의문사로써 나타나고 두 번째 접속절의 상응하는 구가 의문사로써 나타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의사소통적 의도를 가지고 발화할 때 동일한 화행(acto de habla)을 가지는 문장들만이 등위접속이 가능하다. 앞의 예문 (22b, c)를 보면, 두 개의 의문문이 접속되어 있어 동일한 화행을 가지는 문장들이 등위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정문이 된다. 반면에 (23)은 서로 다른 화행을 갖고 있는 문장들(의문문과 서술문)이 등위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요약하면,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각 등위 접속절은 동일한 평행한 구조를 취해야하며 상응하는 구성소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문장의 평행성 관계가 유지된다. 이러한 평행성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문장은 응집성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IV. 형태·통사적 요건 및 의미적 요건

앞 장에서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조성과 평행성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항상 응집성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반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반례들을 분석하면서 문장의 응집성에 형태·통사적 요인과 의미적 요인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4.1. 형태·통사적 요건

다음의 예문들은 평행성과 대조성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데 문법성에 있어서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4) a. *Alan gave Sandy a book, and Peter Betsy a magazine.
 b. Alan le dio a Sandy un libro, y Peter a Betsy una revista.
 c. *Arizona elected Goldwater Senator, and Massachusetts McCormack Congressman.
 d. Arizona eligió a Goldwater Senador, y Massachusetts a McCormack diputado.

(Jayaseelan, 1990: 76)

즉, 등위문에서 생략이 적용된 후 남을 수 있는 잔여요소의 수가 각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략이 적용된 후 남은 잔여요소가 셋인 경우 스페인어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 된다. 영어 예문 (24a)와 (24c)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것은 등위문의 두 번째 절에서 각 요소들의 문법적 기능을 인지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24b)와 (24d)의 스페인어에서는 목적어 명사에 전치사 'a'의 사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겠다. 다음과 같은 영어 예문에서도 문법적 기능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 'to'가 있으면 잔여요소가 셋이 있어도 정문이 될 정도로 문장의 응집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25) A: Who gave what to whom?

B: John gave flowers to Mary and Peter sweets to Ann.

(Kuno, 1976)

- (26) a. Peter talked to his boss on Tuesday, and Betsy to her supervisor on Wednesday.
 b. John talked to his supervisor about this thesis, and Erich to the dean about departmental policies.

(Sag, 1977: 144)

다음의 한국어 예문을 살펴보자.

- (27) a. 후안이 마리아에게 책을 그리고 페드로가 아나에게 꽃을 주었다.

- b. 후안이 마리아를 어제 저기에서 그리고 빠드로가 아나를 오늘 여기에서 만났다.

일반적으로 잔여요소가 두 개인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 같은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는 잔여요소가 세 개 이상이어도 문장의 응집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¹¹⁾ 이는 격(Caso)과 같은 명백한 형태적 요소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격 요소들은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문법적 기능을 명확히 해 응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어에서도 명백한 격 표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다음 예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문장의 응집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비문이 될 것이다.

- (28) a. *후안 마리아 책 그리고 빠드로가 아나에게 꽃을 주었다.
b. *후안 마리아 어제 저기에서 그리고 빠드로가 아나를 오늘 여기에서 만났다.

다음의 스페인어 예문에서도 대격 전치사 ‘a’의 존재가 등위문의 평행성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통사적 또는 의미적인 애매성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 (29) a. Juan golpea a María con un palo y a Guillermo con una correa.
b. Juan golpea a María con un palo y Guillermo con una correa.

11) 다음의 일본어 예문도 한국어와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i) a. María-ga ototoi Juan-ni ringo-o 2-tu to Pedro-ga kinoo Ana-ni
(Nom.) (Dat.) (Acu.) 2-Cl. y (Nom.) (Dat.)
banana-o 3-bon ageta.
(Acu.) 3-Cl
‘María dio dos manzanas a Juan hace dos días y Pedro tres bananas a Ana ayer.’
b. *María ototoi Juan ringo 2-tu to Pedro-ga kinoo Ana-ni banana-o
3-bon ageta.

등위 접속사 ‘y’ 뒤의 명사구 논항들(a Guillermo와 Guillermo)이 첫 번째 접속절의 구성소들(a María와 Juan)과 평행성 관계를 유지시켜줄 형태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즉, a Guillermo는 통사적으로 목적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선행절의 a María와 평행한 관계에 있게 되고, Guillermo는 통사적으로 주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선행절의 Juan과 평행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9a)는 등위문 축약구문의 해석만 가능하고, (29b)는 공백화 구문의 해석만 가능하게 된다.

- (30) a. Juan golpea a María con un palo y
 [Juan golpea] a Guillermo con una correa. (= (29a))
 b. Juan golpea a María con un palo y
 Guillermo [golpea a María] con una correa. (= (29b))

위에서 살펴본 형태적 요인들은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통사적 평행성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문장의 응집성을 높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에 형태·통사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

12) 물론 주어와 직접목적어 사이에 형식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i) El terremoto provocó el pánico en la autopista y el apagón en la ciudad.

(Brucart, 1987: 81, 1999: 2821)

등위 접속절의 접속요소 간에 형태적 구분이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접속요소 간에 평행성 관계가 불분명해 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y’ 뒤의 무생물 명사구는 주어 또는 목적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ii) a. El terremoto provocó el pánico en la autopista y

[El terremoto provocó] el apagón en la ciudad.

- b. ?El terremoto provocó el pánico en la autopista y
 el apagón [provocó el pánico] en la ciudad.

그러나 실제로 스페인어 원어민들은 보다 단순한 해석을 가지는 등위문 축약구문으로 해석한다. 대조적으로 초점화 되거나(cf. (iia)) 휴지(pause) 표지가 사용되면(cf. (iib)) 공백화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iii) a. EL TERREMOTO provocó el pánico EN LA AUTOPISTA y
 EL APAGÓN [provocó el pánico] EN LA CIUDAD.

- b. El terremoto provocó el pánico en la autopista y el apagón, en la ciudad.

이러한 운율적 자질이 없으면 등위문 축약구문의 해석이 보편적이다.

4.2. 의미적 요건

이번에는 의미적인 이유로 인해 문장의 응집성이 매우 약화되는 경우에 대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1) *Carlos tiene muchos libros y Antonio [tiene] muchos nervios.

이 예문은 평행성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비문이 되고 있다. 선행절의 명사구 muchos libros와 생략이 적용된 절의 상응하는 명사구 muchos nervios는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이한 의미 부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성 관계에 있기 어렵다. 따라서 공백화 구문에서 응집성이 매우 떨어지는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32)에서 처럼 muchos nervios 대신에 muchas revistas를 사용하면 정문이 된다.

(32) Carlos tiene muchos libros y Antonio [tiene] muchas revistas.

선행절의 muchos libros와 후행절의 muchas revistas가 의미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요소가 되어 자연스럽게 대조성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의 예문을 보자.

(33) *Ellos mencionaron a Juan y ellas [mencionaron] el libro.

스페인어에서 직접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전치사 ‘a’가 사용되고 사물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사용된 목적어와 그렇지 않은 목적어는 공백화 구문에서 상응하는 구성소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등위 접속된 각 요소들(a Juan과 el libro)이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단위에 속하고 서로 대조적인 관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스페인어에서 ‘a’의 사용은 ‘a’가 없는 경우와 달리 직접목적어의 특정성을 표시한다.

(34) a. Busca a una secretaria. (특정성)

b. Busca una secretaria. (불특정성)

이 경우에도 특정성 목적어와 불특정성 목적어는 서로 대조성 관계에 있기 어렵고 공백화 구문에서 응집성이 매우 떨어지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35) *Juan busca a una secretaria y María [busca] un recepcionista.

다음의 등위접속 생략구문들도 상응하는 구성소들이 유사한 의미 단위를 형성해야 대조가 가능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36) a. *Ana es espeleóloga y María [es] encantadora.

b. Ana es guapa y María [es] encantadora.

c. *Juan es alto y Antonio [es] español.

d. Juan es chileno y Antonio [es] español.

e. *Juan es rubio y Antonio [es] español.

f. Juan es rubio y Antonio [es] moreno.

선행절과 후행절에 각각 주어와 관련된 주격술어가 나타나 있고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백화 구문에서 비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주격술어들이 의미적으로 상이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6a)에서 espeleóloga는 분류적(clasificador) 형용사이고, encantadora는 자질적(calificador) 형용사로 두 형용사 사이의 대조는 매우 어색하다. 반면에 (36b)와 같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자질적 형용사끼리 대조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문장의 응집성이 높아진다.

다음의 예문은 천치사구의 의미적 기능이 서로 달라 공백화 구문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37) a. *Juan comió con su hermano y Mario [comió] con buen

apetito.

- b. Juan comió *con su hermano* y Mario [comió] *con su madre.*

(37a)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전치사구 *con su hermano*와 *con buen apetito*는 의미 기능(función semántica)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37a)에서 전치사구 *con su hermano*는 ‘동반’을 나타내며, *con buen apetito*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미 기능이 다른 구성소들의 대조는 불가능하며 공백화 구문도 역시 비문이 된다. 반면에, (37b)에서는 상응하는 전치사구들이 동일한 의미 기능인 ‘동반’을 나타내므로 정문이 되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도 전치사구 사이의 의미적 기능이 서로 달라 문장의 응집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 (38) a. *José trajo una camisa *para Mario* y Antonio [trajo una camisa] *a Carlos.*

- b. *Antonio iba *de prisa* y José [iba] *a casa.*

(38a)에서는 목표(meta o destinatario) 해석을 가지는 간접목적어 ‘*para Mario*’는 수혜자(benefactivo)로 해석되는 간접목적어 ‘*a Carlos*’와 대조성 관계에 있기 어렵다. 따라서 (38a)는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38b)에서도 *a casa*는 동사의 보어이고, *de prisa*는 단지 상황보어이다. 따라서 통사적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적으로 볼 때도 *de prisa*는 방식을 나타내고, *a casa*는 방향적 장소를 나타내므로 의미적 기능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38b)는 비문이 된다.

다음 예문들의 비문법성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 (39) a. *Juan come *a las doce* y Mario [come] *en el restaurante.*

- b. *Luis comió y Pedro [comió] arroz.

c. *Luis comió poco y Pedro [comió] arroz.

(39a)에서 *a las doce*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en el restaurante*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 비문이 된다. (39b)는 두 명사구 사이에 부과되어야 하는 평행성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comer*라는 동사는 직접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문장이 생략이 일어난 하나의 등위접속 생략구문을 형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사구 *arroz*와 대조를 이를 상응하는 요소가 선행절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39c)에서처럼 양화사 *poco*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문이 된다. *poco* 역시 직접목적어 *arroz*와 의미적으로 대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들도 등위접속 생략구문 내에서 상응하는 구성소들 사이의 의미기능 또는 의미역이 서로 같으면 정문이 되고 다르면 비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0) a. *Ana fue *a la una* y Carmen [fue] *a la escuela*.
 a'. Ana fue *a la una* y Carmen [fue] *a las dos*.
 b. *Juan comió *pan* y José [comió] *rápidamente*.
 b'. Juan comió *pan* y José [comió] *pescado*.
 c. *Carlos caminó *despacio* y Antonio [camino] *en el parque*.
 c'. Carlos caminó *en el jardín* y Antonio [camino] *en el parque*.
 d. *Ellos hablaron *con Miguel* y Ellas [hablaron] *de Darío*.
 d'. Ellos hablaron *con Miguel* y Ellas [hablaron] *con Darío*.
 e. *Juan llegó tarde y Carlos [llegó] borracho.
 e'. Juan vendrá hoy y Ana [vendrá] mañana.
 f. *Antonio lee bien y Ana [lee] cuentos.
 f'. Antonio lee bien y Ana [lee] mal.
 g. *Ana canta felizmente y María [canta] Bésame Mucho.
 g'. Ana canta La Bamba y María [canta] Bésame Mucho.

앞에서 살펴본 많은 예문들의 비교로부터 등위접속 생략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동일한 의미기능(의미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등위문 축약구문도 의미적인 이유로 문장의 응집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 (41) a. *Carlos lleva a María al partido y galletas a la fiesta.
 b. *Carlos took María to the game and chips to the party.
 c. *철수는 경기장에 마리아를 그리고 파티에 과자를 가지고 갔다.

(41a) 예문에서 첫 번째 접속절의 생물 명사구(a María)와 두 번째 접속절의 무생물 명사구(galletas) 사이에 의미적 상충이 생겨 평행성 관계가 약화되며, 의미적으로 매우 이상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영어 예문 (41b)도 같은 이유로 비문이 되고 있다. (41c)의 한국어 예문에서도 ‘데리고 가다’라는 동사는 보통 생물 목적어를 취하고, ‘가지고 가다’라는 동사는 무생물 목적어를 취한다. 첫 접속절의 목적어는 생물 명사구이고 두 번째 접속절의 목적어는 무생물 명사구이다. 따라서 두 명사구는 동사의 선택 제약이 다르고, 등위 접속되면 의미적으로 매우 이상한 문장이 된다. 즉, 두 명사구 사이에 의미적 평행성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등위문 축약구문의 해석도 대단히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의미장(campo semántico)이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 (42) a. Mi hermano vendió *la manzana* y tu hermano [vendió] *la pera*.
 b. ??Mi hermano vendió *la fruta* y tu hermano [vendió] *la manzana*.
 c. Patricia compró *la camisa* y Ana [compró] *los pantalones*.
 d. ??Patricia compró *la ropa* y Ana [compró] *la camisa*.

(42a)와 (42c)는 정문이지만 (42b)와 (42d)는 응집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차이를 접속되어 있는 두 구성소의 의미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구성소의 의미장이 대등한 경우에 한해서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42a)에서는 *la manzana*와 *la pera*는 *la fruta*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동등한 하위어이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대등하여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서로 대조될 수 있는 구성소들이 된다. 마찬가지로 (42c)에서도 *la camisa*와 *los pantalones*는 *la ropa*의 동등한 하위어이다. 따라서 서로 대조될 수 있는 구성소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42b)와 (42d)에서는 각각 *la fruta*는 *la manzana*의 상위어이고, *la ropa*는 *la camisa*의 상위어이다. 따라서 (42b)와 (42d)에서와 같이 의미장이 대등하지 않은 구성소들끼리 대조적인 관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두 문장은 응집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등위접속 구문에서 생략에 따른 응집성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구문에서 응집성을 유지하는 기본 요건으로 대조성과 평행성 제약이 있음을 보았다. 즉,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첫 선행절에 사용된 동일한 구성소들은 후행절에 다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각 등위 접속절은 평행한 동일한 구조를 취해야 하고 상응하는 구성 성분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대조성과 평행성 제약을 모두 만족해야 등위접속 생략구문은 높은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해서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대조성과 평행성 관계 이외에 다른 여러 언어학적 요인들이 개제되어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등위 접속절의 상응하는 구성소들 사이의 형태·통사적 요인 및 의미적 요인들이 문장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어의 목적격 전치사 ‘a’ (영어의 경

우 ‘to’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형태론적 격 표시)가 등위접속 생략구문에서 구성소 사이의 평행성 관계를 명확히 해 주면서 문장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상응하는 등위접속 구성소들이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의미 단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즉 동일한 의미 기능 또는 동일한 의미역 관계에 있어야 하며, 대등한 의미장에 속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위접속 생략구문의 응집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이만기. 2006. 『스페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장석진. 1994. 『통합문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Barrenechea, A.M. 1974. "A propósito de la elipsis en la coordinación." *Studia Hispanica in Honorem R. Lapeza*, II: 105-121.
- Bosque, I. 1984. "Negación y elipsis." *Estudios de Lingüística*, 2: 171-199.
- _____. 1987. "Constricciones morfológicas sobre la coordinación." *Lingüística Española Actual*, 9: 83-100.
- Bosque, I. y V. Demonte(eds.). 1999.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Brucart, J. M. 1987. "Sobre la representación sintáctica de las estructuras coordinadas."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17: 105-129.
- _____. 1999. "La elipsis." en I. Bosque y V. Demonte(eds.). 2787-2863.
- Contreras, H. 1976. "Theme and Rheme in Spanish Syntax." in M. Lujan & F. Hensey(eds.). *Current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330-342.
- _____. 1978.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Cátedra.
- Franchini, E. 1986. *Las condiciones gramaticales de la coordinación copulativa en español*. Francke: Verlag Bern.
- Hankamer, J. 1973. "Unacceptable Ambiguity." *Linguistic Inquiry*, 4: 17-68.
- Hernanz, M. L. y Brucart, J. M. 1987. *La Sintaxis*.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 Jayaseelan, K. A. 1990. "Incomplete VP Deletion and Gapping." *Linguistic Analysis*, 20: 64-81.
- Jiménez Juliá, T. 1995. *La coordinación en español. Aspectos teóricos y descriptivos*. Anejo 39 de Verba. Santiago de Compostela: Universidade de Santiago de Compostela.

- _____. 2005. "Estructura sintáctica y constituyentes internos en español." *Estudios Hispánicos*, 37: 45-60.
- Kuno, S.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_____. 1975. "Three perspectives in the functional approach to syntax." *Chicago Linguistic Society*, 11: 276-336.
- Larson, R. 1990. "Double Objects Revisited: Reply to Jackendoff." *Linguistic Inquiry*, 21: 589-632.
- Rooryck, J. 1985. "Gapping-zeugma in French and English: A non deletion analysis." *Linguistic Analysis*, 15: 187-229.
- Sáez del Álamo, L. 1999. "Los cuantificadores: las construcciones comparativas y superlativas." en I. Bosque y V. Demonte(eds.). 1129-1188.
- Sag, I. 1977. *Deletion and Logical For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Sánchez López, C. 1999. "La negación." en I. Bosque y V. Demonte(eds.). 2561-2634.
- Schachter, P. 1977. "Constraints on Coordination." *Language*, 53: 86-103.
- Stillings, J. T. 1975. "The Formulation of Gapping in English as Evidence for Variable Types in Syntactic Transformations." *Linguistic Analysis*, 1: 247-273.
- _____. 1987. *Functional Synta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llduví, E.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_____. 1995. "Structural property of information packaging in Catalan." in Kiss, K.(e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2-152.
- Vallduví, E. & Engdahl, E. 1996. "The Linguistic Realiza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Linguistics*, 3: 459-519.

Yang, S. K. 2000. "El vaciado en las construcciones coordinadas copulativas: la elipsis parcial." Tesis Doctoral. UCM.

양 승 관

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한양아파트 7-206

E-mail: skygap@hanmail.net

-
- 논문접수일: 2009년 3월 30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7일
 -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1일